

4~5» 양캠퍼스 선거



8» 키워드 분석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1. 신청대상 :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2. 1차 신청기간 : 2016. 11. 17(목) ~ 12. 13(화)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양 캠퍼스 후보 인터뷰

서울캠퍼스 호텔관광대학 칸벤션홀에서 49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와 30대 총여학생회 정책공청회가 열렸다. 양캠 선거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사진=이수형 기자)

Newsmaker

제 25회 대통령상타기 전국 고전읽기 백일장 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박제형(경영학 2010)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글을 쓰다

임창민 기자 ckdals49@khu.ac.kr

#. 지난달 실시된 '제25회 대통령상타기 전국 고전읽기 백일장 대회'에서 박제형(경영학 2010)군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고전의 보급과 우리 고전의 교훈을 알리기 위해 25년째 진행하고 있는 이 대회는 전국 초·중·고·대학,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예선에만 총 84,116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군을 만났다.

박군은 지난 8월, 대장에서 발견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경희의료원에 입원했다. "수술 이전까지 1년 넘게 휴학하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나니 평소 애지중지하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그는 "그러던 중에 청운관 지하에서 우연히 대통령상타기 백일장 대회 벽보를 보고 4시간 만에 예선 원고를 써서 보냈는데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 후 지난 10월 13일 구로구 구로고등학교에서 실시된 본선에서 박군은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를 현대적으로 해석, 자신만의 문제로 표현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박군은 "과거 죽음을 초월한 순수하지만 강렬한 사랑을 현대의 사랑과 대조해서 쓰면서 좋은 결과를 직감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만복사저포기'는 현존 최고(最古)의 한문소설집인 <금오신화>에 수록된 애정소설이다.

이번 수상 이전까지 박군에게 화려한 경력은 없었다. 화려한 글 솜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주목할 만한 수상 경력은 커녕,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렇다 할 대회에 참여한 적도 없었다. 박군은 "문학에 관심이 항상 있었지만 상경 계열을 선택하고 나서 도전할 기회가 없었다"라며 "심지어 언론정보학과에서 들었던 기사 작성 수업에선 '감성적인 글'을 쓴다고 혹평을 받기도 했다"고 웃었다. 그 수업의 화점은 C+였다. 그럼에도 그는 "독서와 글쓰기를 꾸준히 하며 이와 관련된 교양 수업에 충실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군은 가장 도움이 됐던 수업으로 이상임(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논어의 읽기'와 '낙원과 유토피아의 상상력'을 꼽았다. "이 수업에서 고전에 들어있는 과거의 문학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재구성하고 깊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그는 "이 교수님이 하셨던 '내면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고 대회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박군은 취업난으로 힘든 시대에 '인문학'이야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대학이 인문학을 강조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박군은 "웬만하면 글 쓰는 일을 계속하고 싶고 특히 수필을 쓰고 싶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은 취업 준비에 몰두하기 보다는 학교생활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에 '윤중신병'이라고 불리는 크론병 지병으로 고생했는데 오히려 아프다 보니 무슨 일든 시작해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무작정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기보다 자기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서 다양한 경험과 시도를 했으면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20년만의 신설학과, 남은 과제는?

SW 융합학과 신설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 지난 11월 17일 2017년도 수능이 치러져 각 대학은 17학번 학생의 입학울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학교에서도 각종 수시 전형의 시험이 실시되는 가운데 국제캠퍼스(국제캠)엔 20년 만의 신설학과인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또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과학 클러스터-프라이밍사업'을 추진하며 논의된 과정을 되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국제】소프트웨어융합학과(SW융합학과)는 '미래과학 클러스터'에서 논의되고 지난 프라이

밍사업 당시 처음으로 공개됐던 학과로, 프라이밍사업 당시 기획됐던 학과들 중 가장 먼저 신설되는 학과다. 당시 미래정책위원장 이었던 신상협(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프라이밍사업 만을 위해 이번 논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며 "사업에 선정됐을 때만큼 빠른 추진은 힘들겠지만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 20일 우리학교가 '프라이밍사업 후속 정원조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SW융합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됐다. <관련기사: 대학주보 제1607호 1면> SW융합학과는 지난 6월에 신규 트랙을 신설하고 8월까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9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SW융합학과가 당장 내년에 신설될 수 있는 이유는 교육부 정책에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대학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에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하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SW융합학과는 프라이밍사업에서 기획된 학과인 만큼 예외사항에 해당된다. SW융합학과는 국제캠에 20년 만에 등장한 신설학과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동시에 많은 불협화음이 일었고 그에 상응하는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학과 신설을 위한 정원조정 방안을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외국어대학 교수들이

국제캠 황주호(원자력공학) 부총장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황 부총장이 이에 대해 직접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관련기사: 대학주보 제1608호 1면> 현재 SW융합학과는 수시 모집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학과 소개 ▲교수진 ▲교과과정 및 이수체계도 초안 등을 게시한 상태다. 이번 수시모집에선 SW융합학과에 총 49명의 학생을 모집했으며 747명의 학생이 지원했다. 현재 SW융합학과와 관련해 담당교수 및 대학본부 측에서는 ▲산업체와의 연계 ▲신임 전임교원 총원 ▲학사 운영 방침 최종안 ▲단과대 신설 ▲신설 3년차부터 강의 공간 등의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 >3면으로 이어짐

학점교류로 시작된 간담회, 풀리지 않은 갈등

아동가족학과 내 논란

임창민 기자 ckdals49@khu.ac.kr

【서울】지난달 31일 청운관과 생활과학대학 게시판에 금혜린, 유미래, 조가람, 조다현(아동가족학 2012)의 두 번째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 9월 26일 학점교류 신청을 불허한 교수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대자보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네 학생은 시간표가 임의로 변경된 '정신건강' 과목을 대신해 숙명여대 온라인 강의를 학점교류로 요청했다. 그러나 첫째, '표준교육요

에 어긋나는 커리큘럼과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 탓에, 둘째, '학과회의에서 의결돼 수년 전부터 적용됐던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학점교류를 승인받지 못했다. 이번 2차 대자보는 교수의 불허사유에 대한 반박, 회의록 공개요구, 간담회에서 교수의 불미스러운 언행에 대한 비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9월 26일 붙었던 첫번째 대자보 게시 후, 교수진과 관련 학생 네 명은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13일 아동가족학과 구성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대자보를 붙인 4명의 학생과 아동가족학과 전체 교수진 6

명, 그리고 아동가족학과 학생대표를 비롯한 4명의 학생과 생과대 행정실 직원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당시 세 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는 교수진과 학생들 사이의 주장이 철저히 평행선을 이룬 채 종료됐다. 이날 간담회는 학점교류 문제로 시작됐으나, 진행될수록 논의사항이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진의 교권 사이의 대립' 양상으로 전개됐다. 학생들이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학점교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이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과, '학과 회의록을 공개해 의혹이 가

는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은 '학과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지난 1차 대자보 당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이 요청이 거절된 사유가 불분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은 학과회의 과정이 그동안 정당했는지 여부, 그리고 학과 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학과회의에서 의결돼 수년 전부터 적용되었던 원칙'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명문화 돼있는 학칙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 두 가지였다. >6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100만 명의 촛불집회가 '휴지줍기 운동'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송영복(스페인어학과) 교수 >> 7면

